

## 『一然碑』에 보이는 淸玢과 山立의 정체

The Identity of Cheongbun(淸玢) and Sanrip(山立) in the Headstone of Iryon(『一然碑文』)

---

저자 (Authors)	채상식 Chae, Sang-Sik
출처 (Source)	<a href="#">한국민족문화</a> , (59), 2016.5, 123-151 (29 pages) <a href="#">Journal of Koreanology</a> , (59), 2016.5, 123-151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a>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8646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86466</a>
APA Style	채상식 (2016). 『一然碑』에 보이는 淸玢과 山立의 정체. 한국민족문화, (59), 123-15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4/01 16:1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一然碑」에 보이는 淸玢과 山立의 정체\*

채 상 식\*\*

1. 들어가는 말
2. 문제의 제기
3. 청분과 산립을 별개의 인물로 보는 설
4. 양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
5. 맺음말

### <국문초록>

‘통오진정’이라는 같은 호를 가진 청분과 산립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일연비문」과 「일연비음기」에 각각 보이는데, 대선사라는 승계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별개의 인물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들 양자는 별 의심없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견해를 밝힌 연구가 있었으나, 이의를 제기한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반된 견해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주목된다.

곧 「일연비음기」는 통오진정대선사 산립이 지었는데, 그 내용 중에 산립은 일연 생존 시에 그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는 구절이 보인다. 이를 보면 산립은 가지산문 소속 승려이지만, 일연의 직계 문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일연비문」에는 일연의 행장을 충렬왕에게 올려 그의 비문을 짓도록 주선한 청분은 일연의 문인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 이제현이 찬술한 「훈구비문」에 훈구가 보각국사에게 귀의하고 수학한 제자로 기록된 점을 주목한다. 이로 보면, 청분 곧 훈구와 생전에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chauss@pusan.ac.kr)

일연을 빈 적이 없었다는 산립은 별개의 인물인 셈이다.

이러한 상반된 내용 때문에 ‘통오진정’이라는 같은 호를 받은 청분과 산립이 어떤 인물인지 논란이 되었다. 양자를 같은 인물로 파악한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였다.

첫째, 고려시기에 대선사, 선사 등은 상당한 위상을 갖는 고승에게 내리는 승계이다. 이들을 대선사, 선사 등으로 임명할 때는 국가에서 정한 공식적인 절차를 따랐다. 곧 관고와 교서를 함께 내렸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활동한 동일한 종파에 속한 2명의 승려를 대선사로 임명하면서 ‘통오진정’이라는 같은 호를 내렸다고는 볼 수 없다.

둘째, 『대혜종고행장』에 보이는 사례를 주목하고자 한다. 곧 ‘대혜’라는 시호를 받은 남악회양선사가 따로 있었기에 종고는 생전의 호인 대혜와 입적 후의 시호인 보각을 합해 ‘대혜보각’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같은 시대에 생존한 인물이 아님에도 혼동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로 보아 ‘통오진정’은 동일한 인물이다.

셋째, 혼구의 문도들이 지은 행장을 토대로 하여 이제현이 찬술한 『혼구비문』은 일연이 입적한 지 근 33년이 지난 시기에 찬술되었다. 이때 가지산문을 주도한 대표적인 승려인 혼구가 일연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직계 문도는 아니더라도 사상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고승이 있을 경우 그를 스승의 반열로 받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계승한 것으로 표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교계의 관행은 대체로 고승의 행적을 추종하고 존송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물론 이는 교단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혼구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원간섭기의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 양 측면을 모두 지녔을 것이다. 따라서 혼구는 일연 사후에 가지산문을 주도한 대표적인 승려로서 일연의 직계 문도는 아니었지만, 『혼구비문』에 ‘그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를 계승하였다’는 표현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가탁일 뿐이다.

\* 주요어: 일연, 청분, 산립, 통오진정, 관고

## 1. 들어가는 말

보각국사 일연의 행적을 알려주는 일차 자료인 「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并序」<sup>1)</sup>는 현전하는 비석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비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탁본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다. 필자는 일찍이 「일연비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탁본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필사본에 의해 알려진 「일연비문」의 내용 중 잘못 필사된 자구를 밝힌 바 있고, 아울러 완전하지는 않으나 「일연비음기」의 복원을 시도하였다.<sup>2)</sup>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얻게 된 몇 가지 정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연비문」의 필사본에 의거하여 ‘眞靜大禪師 淸珍’ 또는 ‘眞靜大禪師 法珍’ 등으로 잘못 판독한 내용을 ‘眞靜大禪師 淸玢’으로 바로 잡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청분은 보감국사로 추존된 혼구이며, 『삼국유사』에 보완한 주를 남긴 無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연비음기」를 찬술한 ‘通奧眞靜大禪師 山立’의 존재를 찾아내고 산립이 바로 「일연비문」 건립을 주도한 청분임을 밝혔다.

필자가 복원을 시도한 「일연비음기」는 부족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곧 「일연비음기」의 본문은 대부분 판독하였으나, 문도와 단월 부분은 일부에 그친 것이었다.<sup>3)</sup> 이후 이러한 불완전한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잔존하고 있는 「일연비문」 탁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탁본첩을 영인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sup>4)</sup> 그 과정에 김상현이 전보삼 소장본과 박영돈 소장본 등을 이용하여 문도 부분을 많이 보충하였다.<sup>5)</sup> 그러다가 정병삼이 간송미술관 소장 탁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복원의 기반을 만들었다.<sup>6)</sup> 이러한 일연비 복원을 위한 노력의 결과 박영돈은 기왕에 밝

1) 이하 비의 전면은 「일연비문」, 뒷면은 「일연비음기」 등으로 줄여 서술한다.

2) 蔡尙植, 「普覺國尊 一然에 대한 研究」, 『한국사연구』 26, 한국사연구회, 1979a.

3) 蔡尙植, 위의 논문.

4)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편, 『麟角寺普覺國師碑帖』, 보경문화사, 1992.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은해사 일연학연구원 편, 『麟角寺普覺國師碑帖(續集)』, 2000.

5) 金相鉉, 「麟角寺 普覺國師碑 陰記 再考」, 『한국학보』 62, 일지사, 1991.

혀진 탁본을 종합하여 비첩을 만들기도 하였다.<sup>7)</sup>

이와 같이 학계에서 일연비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던 중에, 인각사를 중심으로 문화재청, 경상북도, 군위군 등이 나서서 일연의 탄신 800주년을 계기로 하여 일연비를 복원·건립하기로 하였다. 복원의 최종 마무리는 정병삼 교수가 주관하였는데, 그간 박영돈이 복원·시도한 비첩에 힘입은 바 컸다. 다만 『일연비음기』의 문도 항목을 바르게 배치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부분적이거나 중국 상해도서관 소장 『해동금석원정고본』<sup>8)</sup>에 수록된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8월에 인각사에서 일연비를 새롭게 복원·건립하기에 이르렀다.<sup>9)</sup>

현재 건립된 일연비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기회가 없어 무어라 언급할 형편은 아니다. 다만 『일연비음기』의 판독 중 재검토해야 할 내용이 있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곧 『일연비음기』의 앞부분에 명시된 것으로 비음기를 찬술할 당시 통오진정대선사 산립이 어느 사찰의 주지를 맡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필자가 규장각 소장본을 토대로 ‘보경사주지’로 판독한 있었는데,<sup>10)</sup> 인각사 경내에 일연비를 복원하면서 ‘운문사주지’로 판독하였다. 일부 ‘보경사주지’로 판독한 것을 따른 글도 있었으나,<sup>11)</sup> 인각사에 복원·건립된 일연비와 이후 대부분의 글에서 ‘운문사주지’로 판독·복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결과 필자가 『일연비음기』를 처음 판독할 때 규장각 소장 탁본에 의거하여 ‘보경사주지’로 판독하였으나, 고려대 화산문고 소장 비첩과 최근에 출현한 탁본 등에 의하면 ‘운문사주지’임을 확인할

6) 정병삼, 「一然 碑文의 단월」, 『한국학연구』 5, 숙명여자대학교, 1995.

7) 박영돈, 「신자료를 통해서 본 麟角寺普覺國尊碑陰記」, 『비블리오피리』 3, 한국에서가림, 1992.

8) 『海東金石苑定藁本』에 관한 소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朴現圭, 「上海圖書館藏 劉喜海의 定藁本〈海東金石苑〉」, 『서지학연구』 21, 서지학회, 2001.

9) 정병삼, 「일연선사비의 복원과 고려 승려 비문의 문도 구성」, 『한국사연구』 133, 한국사연구회, 2006.

10) 채상식, 앞의 논문, 1979a.

11) 李智冠, 「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수 있다. 이후 필자는 이를 따랐으며,<sup>12)</sup> 규장각 소장본에 입각한 필자의 초기 판독에 따라 ‘보경사주지’로 한 것은 ‘운문사주지’로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실증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은 「일연비문」과 「일연비음기」에 각각 보이는 청분과 산립의 정체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연을 둘러싼 당시 가지산문의 사정과, 아울러 일연과 청분간의 관계가 밝혀져 『삼국유사』의 간행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 2. 문제의 제기

「일연비음기」는 앞면과 마찬가지로 王羲之의 행·초서체를 집자하여 새긴 것인데, 그 구성은 찬자인 ‘雲門寺住持 通奧眞靜大禪師 山立’이 충렬왕 21년(1295)에 본 비를 세운 경위, 다비할 때의 영험담, 일연의 문도와 단월 등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연비문」의 앞면에는 충렬왕 21년(1295) 8월에 문인인 竹虛가 왕희지체를 집자하였으며 通奧眞靜大禪師 淸玢이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러면 우선 통오진정대선사 청분이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몇 가지 문제되는 바를 지적하기로 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混丘(1251~1322)가 바로 통오진정대선사 청분이라는 사실은 당시의 불교계에 있어서 가지산문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 된다. 그러면 우선 「일연비문」에 보이는 통오진정대선사 청분에 대한 기록을 들어보고 이를 통해 일연과 청분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자료 1〉

1-1. 門人雲門寺住持 大禪師淸玢 狀師之行 聞于上 上令臣撰錄(「일연비문」, 1289년)

1-2. 元貞元年乙未八月日 門人沙門竹虛奉勅集晉右軍王羲之書 門人內

12) 蔡尙植, 「譯註 普覺國尊 一然碑·陰記」, 『신라사학보』 14, 신라사학회, 2008.

願堂兼住持通奧眞靜大禪師清玢立石(『일연비문』, 1295년)

1-3. 雲門寺住持通奧眞靜大禪師 山立述(『일연비음기』, 1295년)

1-4. 國尊在世時 山立以因緣差奪 未獲詣門徒之列 常以爲恨 幸託不朽之囑 庶不結當來攀附之(『일연비음기』, 1295년)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清玢은 山立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sup>13)</sup> 일연 생존 시에는 『일연비음기』 찬자인 산립은 자신의 표현대로 일연의 직계 문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산립은 『일연비음기』에서 일연 생존 시에 직접 찾아뵙지 못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새 천자<sup>14)</sup>가 즉위한 (원정) 원년 을미 초여름 4월 초에, 麟角長老<sup>15)</sup>가 나를 찾아와 부탁하기를 ‘先師께서 열반하신지 홀연히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은례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거듭 臣에게 명하여 선사의 비문을 지어 옥석에 새겨 본원 인각사에 세우고, 이어 조칙을 내려 문도들이 대를 이어 香祀를 받들게 하는 것으로 飾終의 禮를 마치게 하였습니다. 스님의 문도를 비의 뒷면에 열거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읽도록 하여 원래의 사연이 있었음을 알게 하려는데, 이 일은 오직 스님만이<sup>16)</sup> 우리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오.’라고 하므로, 나는 이를 받아들여 그러하겠다고 말하였다.

‘나는(山立) 國尊께서 살아계실 때, 기회도 없었고 인연이 없어 스님의 문도의 열에 서지 못한 것을 항상 한으로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不朽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역시 내세에서라도 스승으로 모실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터인데, 어찌 감히 下命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삼가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두 번 다시 절하면서 이르되, ‘和尚의 門風이 광대하여 실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어떠한 말과 생각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13) 李齊賢, 『瑩源寺寶鑑國師碑銘』, 『東文選』 권118, “師凡七僧秩 六錫號 九歷名藍 再住內院 爲一國釋林之首”라고 한 것에서 여러 개의 法號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 新天子 : 元 成宗을 가리킨다.

15) 麟角長老 : 一然의 門人으로 立碑의 일을 주관하였으나, 어느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16) 子能 : 子能이란 子는 夫子, 孔子, 孟子 등과 같이 상대를 존칭하는 말이니, 先生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비문을 청하는 麟角長老가 山立을 지칭하는 말.

위의 인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연비음기」를 찬술한 통오진정대 선사 산립은 일연 생존 시에 일연이 닿지 않아 그의 문도가 되지 못했음을 항상 한으로 여겼다고 언급한 내용이다.

그러나 淸珮은 일연의 사후 그의 행장을 지어 충렬왕에게 바친다든가, 또 일연이 입적한 충렬왕 15년(1289) 당시에 일연이 주석한 바 있는 운문사의 주지직을 맡는다든가, 또한 일연의 비를 건립한 충렬왕 21년(1295)에는 일연의 탐비와 부도가 소재하고 있으며 일연이 말년을 보낸 인각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운문사와 內願堂<sup>17)</sup>의 주지직까지도 겸임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충렬·충선왕 양대에 걸쳐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물로서 가지산문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승려임을 알 수 있다.

추측컨대 청분은 본래 일연과 함께 같은 가지산문의 출신이지만 일연과는 법맥상으로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로서 가지산문이 일연을 정점으로 크게 세력을 형성하여 불교계의 교권을 장악하게 되자 일연의 입적 후 그의 계승자로 추대된 것은 아닌가 한다. 혹 훈구가 일연의 직계 문도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師事한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청분과 산립이 동일한 인물이라면, 곧 훈구가 일연의 직계 문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해준다.

첫째, 李齊賢이 찬술한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并序」<sup>18)</sup> 중에 ‘훈구는 10세에 無爲寺의 天鏡禪師에게 삭발한 뒤 九山選의 우두머리로서 上上科에 들었으나 포기하고 보각, 곧 일연에게 배웠다.’<sup>19)</sup>는 구절을 위시하여 일연과 훈구와의 관계를 직계 문도로 표현한 것은<sup>20)</sup>

17) 內願堂은 왕궁 내에 있던 왕실의 원찰로서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내원당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 권 26, 원종 10년 12월 기묘에 ‘又設灌頂道場 于內願堂’이라는 것과 함께 『高麗史』에 충숙·충목왕이 행차한 기록이 보이며, 특히 『高麗史』 권38, 공민왕 4년 6월 을축에 “召臺官論曰 僧禪近所犯 不須窮治 禪近內願堂僧也 素有寵於王 至是 通士人妻 爲憲府所鞠 故王命釋之”라 한 것을 보면 내원당과 왕실과의 밀착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훈구가 ‘再住內院’했다는 ‘內院’은 바로 내원당일 것이다.

18) 『東文選』 권118, 이하 「混丘碑文」으로 줄인다.

19) 李齊賢, 「混丘碑文」, “十歲投無爲寺禪師天鏡祝髮 以九山選 首登上上科 棄法從普覺學”.

20) 李齊賢, 「混丘碑文」, “始普覺夢一僧來 自謂五祖演 詰朝師往謁 心獨怪之 及是歎其敏而勤 語衆曰 吾夢有徵矣”라고 한 내용도 훈구가 일연에게 수학차 찾아갔을 때의 설화인데

모두 오류라는 사실이다. 이제현은 일연이 입적한 이후 훈구가 가지산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활약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표현을 했거나, 아니면 훈구와 그의 문도들이 훈구가 일연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은 『훈구비문』의 내용 자체가 소략하게 서술된 것과도 관련될 것이다.

둘째, 『삼국유사』의 초간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sup>21)</sup> 현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편이다. 일연 생존 시에 이루어졌다는 설과 일연 사후 無極老人,<sup>22)</sup> 곧 훈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견해 등이 있다. 만약 훈구가 일연 생존 시의 직계 문도가 아니라면 일연이 생전에 간행한 『삼국유사』를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附記를 수록하면서까지 새로이 간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무리 중요하게 인식된 저술이라 하더라도 당시의 판각 기술이나 몽고와의 대전쟁을 겪은 뒤의 인적·물적 여건으로 보아<sup>23)</sup> 이미 간행된 것을 폐기, 처분하고 다시 간행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부분적인 改刻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개각에 따른 附記가 별도로 있었을 것이다.

결국 『삼국유사』는 일연이 남긴 많은 저술 중에 포함된 것으로서 卷子本이나 折帖本 형식으로 분권 없이 내용항목 순으로 제1~9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그의 사후 일연의 계승자로 자처한 훈구 곧 무극이 자기의 의견을 보충하여 5권으로 분권하여 등재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초간한 것이라고<sup>24)</sup>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견해는 앞으

그 근거가 희박하다.

- 21) 金相鉉, 「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 『한국사연구』 38, 한국사연구회, 1982, 2~12쪽 참조.  
 22) 李齊賢, 「混丘碑文」, “中吳蒙山異禪師 嘗作無極說 附海舶以寄之 師默領其意 自號無極老人”.  
 23) 일연의 직계 문도인 禪叢이 쓴 『人天寶鑑』 跋文에 의하면 일연이 생전에 『人天寶鑑』의 간행을 부탁했지만 간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보이는데(蔡尙植, 『至元15年(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1986, 삼영사, 694~695쪽;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이는 당시의 판각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4) 柳鐸一, 「三國遺事의 文獻變化 樣相과 變因」, 『三國遺事研究』上,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참조.

로 학계에서 깊은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로 미룬다.

앞에서 청분과 산립에 관한 상반된 기록을 중심으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좀더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3. 청분과 산립을 별개의 인물로 보는 설

필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분과 산립을 같은 인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김상현 교수는 이에 관한 그의 초기 논문에서 청분과 산립을 동일 인물로 이해하였다.<sup>25)</sup> 그는 “무극이 일연의 생존 시에 문도의 열에 끼이지 못했음을 한했던 점을 감안할 때, 무극은 일연 사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일연의 영광을 계승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연이 84세로 입적하던 1289년에 무극은 나이 겨우 39세였다.”라고 하여 청분=산립=무극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필자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처음의 견해를 수정하여 양자를 별개의 인물로 파악하였다.<sup>26)</sup> 이러한 김상현의 수정한 견해를 받아들인 분은 이지관 스님이다. 그는 역대고승비문(고려편)을 종합·정리하여 역주를 시도하면서 『일연비문』과 『일연비음기』를 다루었다. 그는 각주에서 필자의 글에 대한 서지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김상현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sup>27)</sup> 이지관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논점이 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에 긴 인용이긴 하지만 다듬어서 제시하기로 한다.

“산립은 보경사 주지를 역임하였지만, 다른 자료에서도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분은 본 비문 말 입석기에 문인 내원당겸주지 통오진

25) 金相鉉, 「三國遺事의 書誌學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37~38쪽.

26) 金相鉉, 앞의 논문, 1991, 58~61쪽.

27) 李智冠, 「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261쪽(주 269).

정대선사 청분이라 하였고, 산립도 음기 술제에 보경사<sup>28)</sup>주지 통오진정 대선사 산립 술이라 하였다. 양처에 ‘통오진정’이란 4자가 같다는 점을 들어 청분과 산립은 동명동인이나, 아니면 동명이인이나, 라는 양론이 있다. 그 양론이란 ① 爲避大朝國師之號也條에서 인용한 김상현 논문에서는 보각비문 말에 ‘雲門寺住持大禪師 淸玢 狀師之行 聞于上 上令撰辭’라 한 것과 비문 말 입석기에 ‘門人 內願堂兼住持 通奧眞靜大禪師 淸玢 立石’과 그리고 李齊賢이 지은 瑩源寺 寶鑑國師 碑文에 의하면 혼구가 은사인 無爲寺 天鏡禪師를 떠나 普覺國師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嗣席開堂 하였다는 등에 의하여 淸玢이 일연의 제자임이 분명하나, 山立은 그가지은 보각국사비의 음기에서 인연이 어긋나 스님의 門徒列에 끼지 못한 것을 항상 한탄하였다는 점을 들어, 일연의 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이에 반하여 종래의 일부 학자들은 內願堂兼住持 通奧眞靜大禪師 淸玢이라는 입석기와 음기 술제에 寶鏡寺住持 通奧眞靜大禪師 山立 述이라 하였다. 이 양처에 ‘通奧眞靜’이란 4자가 같다고 하여 淸玢과 山立은 동명동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양론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통오진정’이란 4자로 본다면 동인으로 볼 수 있고, ‘山立 以因緣差奪 未獲詣門徒之列 常以爲恨’이란 18자를 살펴보면, 곧 인연이 닿지 아니하여 문도의 행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항상 한탄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일연의 제자인 청분과 같은 인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필자의 견해는 김상현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비문을 세운 연대는 1295년이고, 음기를 찬술한 때는 ‘先師入滅 忽忽六七年’이라 하였으니, 일연의 입멸이 1289년이므로 입멸 후 6·7년이라면 1295년이나, 1296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다면 1295년에 비를 세우고, 다음해인 1296년에 음기를 찬술한 셈이므로, 청분과 산립이 같은 시대의 인물임은 틀림이 없다. 두 사람이 함께 ‘通奧眞靜’이란 法稱이 같다고 하여 동인이라고는 고집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산립은 스스로 인연이 어긋나 일연의 문도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항상 한탄하였지만, 그러나 스님의 비음기를 지으라는 不朽의 勝緣이 될 부탁을 받았으니, 이 또한 當來에 스님께 攀附할 인연이 맺어지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산립은 청분과 동일인도 아님이 분명하다 하겠다.”

28) 보경사는 운문사로 수정해야 한다.

이상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지관은 김상현이 수정한 견해를 따르고 있다. 곧 청분과 산립은 별개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들 견해의 핵심은 청분은 일연의 제자인데 비해, 산립은 일연 생존 시에 그를 직접 뵈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김상현과 이지관의 견해를 따르면서 더욱 진전된 몇 가지 견해를 덧붙인 문경현 교수의 연구는 주목된다.<sup>29)</sup> 그의 견해의 논지는 앞의 두 사람 견해처럼 『일연비음기』에 산립이 생전에 일연선사를 찾아뵈지 못했다는 구절에 치중하고 있다. 그의 견해를 들면 다음과 같다.

“두 분의 칭호는 일국의 의표가 되는 고승 석덕에 주는 법계 칭호이지 시호는 아니다. 시호는 사후에 올리는 호이다. 나는 청분과 산립이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본다. 청분은 그의 탐비문에 의하면 이름이 混丘, 구명 淸珩, 호가 無極이다. 산립이란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보각국사탐비문에 문인 운문사주지대선사 청분이 일연의 행장을 국왕께 올려 민지는 이를 참고하여 비문을 지었다. 비문의 말미에 ‘門人竹虛 奉勅集普右將軍王義之書’라고 하고 ‘門人 內願堂 兼任持通奧眞靜大禪師 淸珩立石’이라 하여 제자는 반드시 門人이라 明記했다. 그러나 산립은 ‘雲門寺住持通奧眞靜大禪師 山立述’이라 쓰고 문인을 칭하지 않았다. 그리고 음기에 주목할 기사가 있다. (중략)

이를 보면 산립은 보각국사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산립 자신이 말한 명백한 증빙자료다. 그래서 그의 칭호 인명 앞에 문인을 冠記하지 않은 사연을 알게 된다. 여기서 운문사로 주지 산립을 찾아가서 음기를 부탁한 인각사 장로란 인물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 그 인물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학계의 인식이었다. 나는 이 인각 장로란 인물이 당시 內願堂住持를 兼帶한 인각사 주지 청분을 일컫는다고 본다. 청분은 국사의 법사 首資였고 국사의 비를 건립하는 제반 사무를 총괄하던 문도의 대표였다. 그리고 하필 산립에게 부탁한 것은 그들의 특별한 인연에 기인한다. 청분이 운문사 주지로 있다가 인각사 주지로 옮겨 왔을 때 그 후임으로 산립이 운문사의 주지를 맡아 왔다. 국사의 후임으로

29) 문경현, 『《삼국유사》 撰述의 史的 高찰 - 達城 毗瑟山 撰述處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27, 신라사학회, 2013, 331~335쪽.

청분이 운문사의 주지로 왔고 청분의 후임으로 산립이 주지로 왔다. 그러나 원임 주지 청분은 시암 주지 산립에게는 존경하는 長老였다.

그리고 운문사 주지는 일연-청분-산립 3대 承襲 전수되었으니 이 같은 인연이 있는 당대의 고승 대선사인 산립에 청탁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국사의 高弟로 豎碑 사무를 관장하던 인각사 장로(주지) 청분이 운문사로 후임 주지를 찾아가서 보각비의 음기를 청탁했던 것이다. 보각의 수제자로 비 건립의 일체 사무를 관장하던 주지 청분을 인각 장로라고만 해도 다 알 것을 굳이 이름까지 쓸 필요가 없었다. 장로는 덕행이 높은 나이 많은 중에 대한 호칭이며 小比丘가 大比丘에 대한 존칭이다. 중이 수계 후 20년을 長이라 하고 고령을 老라 한다. 일반적으로 절의 年滿德高한 주지나 방장의 노승을 높이는 말이다. 인각사의 장로는 보각국사의 高足인 인각사 주지 청분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청분 그이라고 본다. 碑陰記에 적힌 보각의 문도를 보면 大禪師에 17인, 禪師에 24인, 首座 2인, 山林 41인, 三重 22인, 大選 14인, 參學 30인, 在家弟子 39인 총 203인의 문도 명단 중에 산립의 이름은 없다. 청분은 대선사 반열 중에 인각사 주지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음기의 찬자 산립이 그 비문에서 인연이 안 닿아 자신이 국존의 문도 반열에 끼이지 못했다고 한탄하면서 자신을 산립이 아닌 청분이란 이름으로 문도 대선사 반열에 인각사 주지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음기의 찬자 산립이 비에 雲門寺住持通奧真靜大禪師 山立述 이라 하고 豎碑人에 門人 內願堂兼通奧真靜大禪師 淸玢 立石이라고 동일 인물이 전혀 다른 직책과 이름으로 보각국사비에 기재될 수 있을까.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산립과 청분을 異名同一人이라고 단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에는 도저히 左袒할 수 없다. 보각비에 적힌 인각사 주지 청분과 운문사 주지 산립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인물이다. 청분이 국사가 입적한 1289년(충렬왕 15) 운문사 주지로 있었으며 국사의 행장을 지어 국왕께 올렸다. 이 행장에 의거하여 민지가 普覺國師靜照塔碑銘并序를 奉勅撰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분은 ‘문인’이라고 하였으나, 산립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문인’은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크게 보면 직접 문도가 아니더라도 같은 문종의 스승의 반열에 있는 고승에게 ‘문인’이나 ‘제자’ 등을 칭하

기도 한다. 둘째, 「일연비음기」를 찬술하도록 산립에게 찾아간 인각 장로가 청분이었다는 것이다. 청분은 「일연비음기」의 문도 대선사 항목에 거의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며, 일연 입적 시에는 39세의 나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산립이 「일연비음기」 문도 항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문경현 교수는 일연이 젊었을 시절 머물렀던 비슬산을 주목하고서, 『삼국유사』의 찬술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삼국유사』의 찬술에 관한 내용은 언급을 피하지만, 청분과 산립에 관한 견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4. 양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

청분과 산립을 같은 인물로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통오진정’이라는 호이다. 우선 주목할 점은 대선사를 비롯한 고위 승계를 승려에게 내릴 때의 절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봉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교서와 관고를 통해 공표하였다.<sup>30)</sup> 따라서 같은 시기에 활동한 승려를 대선사로 임명할 때 ‘통오진정’이라는 호를 내렸던 인물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사용한 범명은 여럿일 수 있다. 이는 사찰에서 수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고려시기에 승려에게 대선사, 선사 등을 비롯하여 삼중대사 이상의 승계를 내릴 때에는 4품 이상의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郎畝의 서명을 거친 고신을 거쳐 국왕이 교서를 통해 制可하였다. 그러나 승려들의 승계의 고하에 따라 관고에서도 구분이 있었다. 고려에서 宰臣과 종실만이 대관고로 임명되었고, 추밀 이하 僕射, 八座, 上將(軍) 등은 소관고였다고 한다.<sup>31)</sup>

30) 張東翼, 「惠諶의 大禪師告身에 대한 檢討」, 『한국사연구』 34, 한국사연구회, 1981, 106~112쪽;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1986, 348~349쪽.

31) 『補閑集』 卷下, 「漢制帝書有四」, “舊制 樞密僕射八座(협주 생략) 上將 並小官詔 近樞密

당시 이규보가 쓴 『華嚴業僧統都行教書·大官誥』<sup>32)</sup>를 보면 화엄종의 도행을 승통으로 임명할 때 교서와 대관고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로 보아 승통은 宰臣의 위상으로 임명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승려와 관인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불교를 국교로 한 고려에서는 그만큼 고승을 우대했다고 할 수 있다. 곧 국사와 왕사의 바로 아래의 승계이지만 선종의 최고 승계인 대선사와 교종의 최고 승계인 승통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국사와 왕사는 당시 최고 지위에 있는 대선사, 승통 가운데 선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선사·승통 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신의 위상을 가졌다고 하겠다.<sup>33)</sup>

한편 고승을 국사와 왕사로 책봉하거나 추증할 때 이들에게 호 또는 시호를 내렸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최고의 승계인 선종의 대선사, 교종의 승통 등을 임명할 때에도 호를 함께 하사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때에도 국가에서 정한 법식과 절차를 따랐는데, 교서와 관고를 함께 내렸다. 『동문선』 권27에는 국사(추증), 대선사, 선사, 승통, 수좌, 양가도승록 등을 책봉할 때 내린 교서와 관고가 수록되어 있다.<sup>34)</sup>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어느 정도 당시의 사정을 밝히고 있다.<sup>35)</sup>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같은 시기에 활동한 동일한 종파에 속한 2명의 승려를 대선사로 임명하면서 ‘통오진정’이라는 같은 호를 내렸다고는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분과 산립은 동일한 인물인 셈이다.

---

使 始預宣麻 僧官誥視卿相 大小各有差”라고 하여 승려들의 관고는 卿相과 비슷하고 대소 관고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연구는 朴胤珍,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경인문화사, 2006, 171~173쪽 참조.

32) 『東文選』 권27 및 『東國李相國集』 권34.

33) 朴胤珍, 앞의 책, 2006, 172~174쪽.

34) 『東文選』 권27에는 교서와 관고가 함께 남아 있는 사례와 관고만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張東翼, 앞의 논문, 1981, 99쪽, 주) 16에는 “품계에 따라 교서와 고신이 함께 주어지는 경우(麻制 또는 大官誥)와 고신만 지급되는 경우(小官誥)가 있으며, 승려들의 경우는 승통·대선사 이상에게만 교서와 고신이 함께 지급된다”라고 하였다.

35) 許興植, 앞의 책, 1986, 348~350쪽; 朴胤珍, 앞의 책, 2006, 170~174쪽.

한편 송광사에는 뒷날 진각국사로 추증된 혜심을 고종 3년(1216) 대선사에 책봉할 때 내린 관고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곧 ‘高麗高宗制書’라 하여 현재 국보 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장동익 교수가 심도 깊은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sup>36)</sup> 그의 성과에 의하면 “고려시기의 승정체제는 국가권력이 작동하면서 엄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최고위직 승계인 대선사 임명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왕이 직접 제가한 임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의 체계적이면서 제도화된 승정 운영을 감안한다면 ‘대선사’를 책봉할 때 같은 시기에 생존한 2명의 승려에게 같은 호를 동시에 내렸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고승에게 호를 내리더라도 이미 같은 호를 받은 인물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접근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이는 중국 송대의 사례이지만, 간화선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大慧宗杲(1089~1163)가 입적한 뒤 시호를 내릴 때의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종고의 행적을 정리한 「大慧禪師行狀」<sup>37)</sup>에 보이는 다음의 구절은 흥미할 필요가 있다.

“이듬해 임오(송 고종 32, 1162)에 왕이 대혜선사라고 직접 호를 하사하였다. 孝宗 隆興 원년 계미(1163)에 명월당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한 별뿔이 아주 밝은 빛을 내면서 경산사의 서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중들이 보았다. (종략) (스님께서) 남기는 표를 손수 쓰시고 아울러 뒷일을 부탁하니, 시자 요현이 (임종)계를 청하자, 스님께서 큰 글씨로 계를 쓰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것도 이러하고 죽는 것도 또한 이렇거늘, 계가 있고 계가 없는 것이 이 무슨 뜨거운 열기인가”라 하시고 편안하게 입적하셨다. 세상의 나이는 일흔 다섯이며, 법랍은 오십 여덟이었다. 왕이 매우 슬퍼하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시호를 普覺이라 하고 탑호를 普光이라 하였다. 지금 살아계실 때의 호와 입적하신 후의 시호를

36) 張東翼, 앞의 논문, 1981.

37) 「大慧禪師行狀」은 大慧宗杲의 제자인 慧然이 기록하고 속가제자인 淨智居士 黃文昌이 증편한 『書狀』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書狀』을 번역하면서 ‘행장’을 수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행장’을 수록하고 있다. 후자로는 金吞虛 현토역해, 『書狀』, 화엄학연구소, 1976 및 智象 주해, 『書狀』, 불광출판사, 1998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들어서 大慧普覺이라 한 것은, 南岳讓和尚의 호가 또한 대혜이기 때문에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어록 80권이 있어 대장경을 따라 유행하고 사법제자는 83인이다.”<sup>38)</sup>

위의 인용을 보면 동시대의 인물이 아님에도 ‘대혜’라는 시호를 가진 인물이 두 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6조 혜능의 법을 계승한 南岳懷讓禪師(677~744)와 바로 대혜종고(1089~1163)이다. 이들에게 각각 내려진 호가 같은 ‘대혜’였으며, 같은 호로 불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후대의 종고에게는 ‘대혜보각’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같은 호를 사용함으로써 가져올 혼동을 염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호의 사용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국왕이 중앙 관청의 임명 절차를 거치면서 ‘통오진정대선사’라는 호를 같은 시대에 활동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도 선종계의 다른 산문도 아니고 같은 가지산문에 속한 두 사람에게 똑같은 호를 내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은 「일연비문」, 「일연비음기」, 「훈구비문」 등에 기록된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곧 청분이 일연의 문인을 자처하며, 일연의 행장을 수습하여 충렬왕에게 올렸으며, 청분이 일연에게 수학했다는 기록 등을 보면 청분은 일연의 문도임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 「일연비음기」에 산림은 생전에 일연의 문하에서 수학하지 못했다는 기록은 산림이 청분과는 다른 별개의 인물로 보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일연비음기」에 보이는 문도들의 구성과 출신 종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연비음기」는 크게 본문, 문도, 단월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문도 항목에 보이는 대선사 17, 선사 24, 수좌 2, 산림 40, 삼중 22, 대선 14, 입선 14, 참학 30 등 163명은 모두 일연의

38) 「大慧禪師行狀」, “明年壬午 上 賜號曰大慧禪師 孝宗隆興元年癸未 仍居明月堂 一夕 衆見一星 落於寺西 流光赫然 (중략) 手書遺表 并囑後事 有僧了賢 請傷 師乃大書曰 生也 祇麼 死也祇麼 有傷無傷 是甚麼熱 怡然而逝 世壽 七十有五 坐夏 五十有八 上 痛悼不已 賜諡曰普覺 塔曰普光 今學生號死諡云大慧普覺者 揀南岳讓和尚 亦號大慧故也 有語錄八十卷 隨大藏流行 爲法嗣者 八十三人也”.

직계문도들인지 알 수 없다. 교종 승계인 수좌의 예, 참학의 존재, 많은 수의 고위 승계인 대선사와 선사 등의 존재로 보아, 이들은 반드시 일연의 직계 문도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 최고위 승계인 대선사 17명은 가지산문을 비롯하여 당시 선종계의 각 산문을 대표하는 승려들이었을 것이다.<sup>39)</sup>

한편 「일연비음기」에는 가장 높은 승계인 대선사 17명 중 16번째로 청분이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선사인 산립은 인각장로가 비음기를 찬술해 주기를 청할 정도일 뿐 아니라 가지산문의 주요 사찰인 운문사 주지직을 맡고 있는 고위직 승려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본다면 산립은 「일연비음기」의 문도 ‘대선사’ 항목에 당연하게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산립이 명기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속사정이 있었다고 본다. 이는 결국 청분과 산립이 동일한 인물이었기에 평소 많이 사용한 법명인 청분을 명기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처음 사용한 법명인 청분도 뒤에는 혼구로 바꾸었다고 한다.<sup>40)</sup>

그러면 앞서 살핀 상반된 기록과 「일연비음기」에 청분만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보감국사 혼구의 행적과 李齊賢이 「혼구비문」을 찬할 당시 이용한 자료와 그의 태도 등이다. 혼구에 관한 가장 일차적인 자료는 이제현이 찬한 「혼구비문」이다.<sup>41)</sup> 이를 중심으로 보감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혼구와 그에 관한 주목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현은 「혼구비문」의 서와 본문의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다.

39) 한기문, 「고려 후기 일연 주판 인각사 구산문도회의 성격」, 『일연과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2007, 153~163쪽에는 「일연비음기」의 문도 가운데 소속 사찰이 명기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소속 종파가 확인된 것은 가지산문 7인, 굴산문 4인, 성주산문 1인, 해룡산문 1인, 천태종 3인, 유가종 1인 등이라고 한다. 선·교종을 망라한 이러한 성격의 문도가 기재된 데는 일연의 불교사상과도 연결된다고 하였다.

40) 李齊賢, 「混丘碑文」, “國師諱混丘 字丘乙 舊名淸珮”.

41) 李齊賢, 『樸翁稗說』後集2, 「月菴長老山立 爲詩多點化 古人語如云」 및 『益齋亂藁』권4, 「寶蓋山地藏寺用小陵龍門奉先寺韻」, “當年無極翁”에 의하면 ‘山立’, ‘無極’ 등의 용례가 보인다. 이제현이 ‘장로 산립’, ‘무극옹’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제현은 평소 그보다 36세가 많은 혼구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2〉

2-1. 근세에 대비구로서 불조의 도를 밝혀 뒤에 배우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준 이는 普覺國師이다. 그의 무리가 대체로 수백, 수천이나 되지만 능히 굳은 것을 뚫고 깊은 것을 움켜서 묘계를 출탈한 자는 오직 보감국사 한 사람일 뿐이다.

2-2. 10살 때에 무위사의 천경선사에게 가서 출가하였다. 구산의 승과에서 장원 급제하여 상상과에 올랐으나, 내버리고 보각국사에게 나아가 배웠다.

위의 내용을 통해 보각국사 일연과 보감국사 혼구 곧 청분이 사제 관계임을 말해준 「일연비음기」의 문도 ‘대선사’ 항목에 보이는 ‘인각사 청분’이라는 기록은 일연과 청분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일연비음기」에 보이는 문도들은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각종파의 고승을 필두로 하여 일연의 직계 문도, 인각사의 실무직을 맡은 승려들을 망라한 명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도 항목에 청분이 들었다고 하여 청분을 일연의 직계 문도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제현이 찬한 「혼구비문」의 내용에서는 청분이 일연을 계승한 뛰어난 인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 「혼구비문」의 기록과 「일연비음기」에 산립은 인연이 닿지 않아 일연을 뵈지 못했다는 상충된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제현(1287~1367)이 「혼구비문」을 지은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충숙왕 9년(1322)에 보감국사가 입적했을 때 이제현은 36세의 나이로 가지산문에 관한 전반적인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일연이 입적한 해에는(1289년) 이제현이 겨우 3살의 나이에 불과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혼구비문」에 기록된 일연과 청분과의 관계는 이제현이 독자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혼구의 문도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준 행장에 의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閔漬(1248~1326)가 「일연비문」을 찬술할 때도 그는 겨우 40대 초의 나이로 청분이 작성한 일연의 행장에 의

거해 일연 문도들의 사정을 기록했을 것이다. 따라서 「일연비음기」에 청분이 아니라 산립으로 이름을 바꾸어 일연과 본인과의 관계 곧 일연 생존 시에 찾아뵈지 못했다는 내용을 밝힌 것은, 산립 곧 청분이 성직자로서 남긴 최소한의 자기 고백인 셈이다.

둘째, 이미 일연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가지산문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혼구는 당대에서 당연하게 추호의 의심도 받지 않고 보각국사 일연의 제자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또 당시 가지산문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청분과 그의 문도들은 그들이 보각국사를 계승한 것으로 표방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세현이 「혼구비문」을 지을 때 그가 직접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기보다 관행처럼 보감국사 혼구의 문도들이 보낸 행장을 기초로 하여 비명을 문장화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 가지산문을 주도했던 혼구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비문을 중심으로 그의 행적과 주목되는 기록을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3〉

3-1. 국사의 휘는 혼구요, 자는 구을이며, 옛 이름은 청분이고 속성은 김씨이다. 부친은 첨의평리를 증직으로 받은 중부로서 청풍군 사람이며, 모친은 황려민씨이다. 충현왕 27년 신해년(고종 38년, 1251) 7월 27일에 태어났다.

3-2. 10살 때에 무위사의 천경선사에게 가서 출가하였다. 구산의 승과에서 장원 급제하여 상상과에 올랐으나, 이를 내버리고 보각국사에게 가서 배웠다.

3-3. 충렬왕이 가리법복을 내리고 여러 번 하비하여 대선사에 이르렀다. 충선왕이 즉위해서는 특히 양가도승통을 제수하고 ‘大師子王法寶藏海國一’이라는 호를 더하였다. (중략) 이에 국왕과 의논하여 조종의 구례에 따라 사를 ‘悟佛心宗解行圓滿鑑智王師’로 책봉하였다. 양대의 왕이 모두 제자의 예로서 유익한 가르침을 청한 것은 이전에는 아직 없었던 일이다.

3-4. 至理<sup>42)</sup> 2년 겨울 10월에 이르러 (사는) 병이 들었다. (중략) 방

42) 至治를 피휘한 것이다. 곧 고려 성종의 諱가 ‘治’이다(『高麗史節要』 권2, 成宗).

장으로 돌아와 결상에 의지하여 입적하였다. 사는 침착 중후하고 말이 적으며 학문은 엿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시문에 모두 능하였다. 그의 저술은 『어록』 2권, 『가송잡저』 2권, 『신편수록의문』 2권, 『중편염송사원』 30권 등이 있었다.

3-5. 중국 오나라의 異蒙山禪師가 일찍이 無極說을 지어서 바다를 왕래하는 배 편에 보내왔다. 사가 묵묵히 그 뜻을 받아들여 스스로 호를 무극노인이라고 하였다. (입적시 사는) 나이는 73세, 승납은 63년이었다.

3-6. 사는 모두 7번 벼슬의 품질을 높였으며, 6번 호를 받았다. 9번 이름 있는 절을 순례하였으며, 2번이나 내원에 머물렀다. (중략) 이미 선종을 주재하여 모든 방법을 다 기울이고, 아울러 經書와 史記를 섭렵하여 정밀한 이치를 연구하였다.

이상의 「훈구비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보감국사 훈구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그는 부자간인 충렬왕과 충선왕과 이어 충숙왕 모두에게 추앙을 받을 정도로 다분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상을 가졌던 승려로 보인다. 그의 비문에 의하면 충렬왕대 대선사, 충선왕 즉위초에 양가도승통, 충숙왕대에 감지왕사로 책봉되었고, 입적후 보감국사로 추증될 정도의 인물이었다. 더욱이 당시 가지산문과 더불어 불교계의 양대 산맥인 천태종과 그 주지직을 다룬 경남 밀양에 소재한 영원사를 차지하고<sup>43)</sup> 입적하기 직전에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위상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제현이 위의 자료 3-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는 모두 7번 벼슬의 품질을 높였으며, 6번 호를 받았다. 9번 이름 있는 절을 순례하였으며, 2번이나 내원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훈구는 6번의 호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의 호가 아니라 많은 호를 사용한 승려로 보인다. 그만큼 불리는 호가 많았다는 것은 법명에도 적용되리라 본다. 청분과 산립의 경우도 이러한 기록과 관련되리라 본다.

둘째, 「훈구비문」에서는 훈구가 일찍부터 보각국사 곧 일연에게 수학한 것을 강조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훈구비문」 서에 훈구가 승과의 상상과

43) 蔡尙植,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社 結社』, 『한국사론』 5, 서울대 국사학과, 1979b.

에 합격한 후 보장받는 승직을 버리고 보각국사에게 가서 배웠다는 구절이다. 이는 그의 저서가 일연의 저서를 계승한 듯한 내용과도 관련된다. 經書와 史書에 밝은 그의 학문적 태도는 『삼국유사』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제현이 무언가 혼구를 보각국사와 인연이 닿았던 인물로 운색한 느낌을 버릴 수 없다. 물론 이제현으로서는 혼구의 행장이 그러한 방향에서 정리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혼구가 스스로 호를 ‘무극노인’이라 한 내용에 대해서도 음미할 만하다. 혼구와 元의 蒙山德異과의 교류는 간화선의 이해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sup>44)</sup> 이러한 연유를 가진 무극이라는 호는 『삼국유사』에 명기되어 있어 『삼국유사』의 성격과 간행에 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다.

한편 「일연비음기」에 보이는 문도들은 일연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도로 명기된 승려들의 승계를 기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대선사 17명, 선사 24명, 수좌 2명, 산립 41명, 삼중 22명, 대선 14명, 입선 14명, 참학 30명 등인데, 그들은 크게 보면 당시 불교계의 각 종파를 대표하는 고승, 가지산문에 속한 고승, 일연의 직계 제자, 인각사의 실무직 승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

이들 중 대선사, 선사, 수좌 등의 직명을 가진 43명의 승려들은 그들과 관련된 사찰명이 병기되어 있다. 이들은 당시의 승계로 보아 국가에서 고신을 통해 임명할 정도로 위상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대선사의 위상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렇다만 ‘통오진정’이라는 동일한 호를 각각의 인물에게 내렸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청분과 산립은 동일한 인물이다.

한편 앞서 살핀 청분과 산립의 관계에 관한 남동신 교수의 견해는 주목된다. 그는 “이제현이 찬술한 「보감국사혼구비문」<sup>45)</sup>에는 일연 생존 시에 혼구 즉 청분이 일연 문하에 합류하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이를 역사적 사

44) 이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印鏡, 『蒙山德異와 高麗後期 禪思想 研究』, 불일출판사, 2000; 趙明濟, 『高麗後期 看話禪 研究』, 혜안, 2004; 허홍식, 『고려에 남긴 후휴암의 불빛 몽산덕이』, 창비, 2008.

45) 『東文選』 권118.

실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혼구 스스로 지은 글이며 시기적으로도 30여 년 앞서는 『일연비음기』가 좀더 사실에 가까우며, 뒤에 이제현이 찬술한 『혼구비문』은 청분이 일연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점을 정당화하고자 후대에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46)</sup> 이러한 견해의 상당 부분은 『일연비문』의 완전한 탁본에 의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일연비음기』가 부분적으로 복원·소개된 이후, 김상현이 초기 논문에서 청분과 산립을 동일 인물로 밝힌 내용과<sup>47)</sup> 상통하고 있다.

한편 眞靜大禪師 混丘는 현 학계에서 찬자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문보장록』의 찬자로 추정된다.<sup>48)</sup> 『선문보장록』의 찬자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序에 ‘海東沙門 內願堂眞靜大禪師天頊蒙且序 至元三年癸巳十一月日也’라 협주하여 천책의 저술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종래의 견해도 『선문보장록』은 천태종 계통의 백련사 제4세인 眞靜國師 天頊(1206~?)의 저술인 것으로 보았으나, 필자는 천책은 眞淨國師로 보며<sup>49)</sup>, 따라서 후세의 기록에서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진정대선사를 천책으로 혼동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곧 『일연비음기』에 보이는 內願堂眞靜大禪師는 眞淨國師 天頊과는 별개의 인물이며, 李混이 쓴 『선문보장록』 발문에 ‘今內願堂鷲谷住老呆庵大禪翁’이라 한 것에서도 내원당과 연곡사의 주지를 겸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 시기는 내원당과 운문사의 주지를 겸임하기 이전인 충렬왕 19년(1293)에서 충렬왕 21년(1295)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선문보장록』은 내용상 休靜이 그의 저술인 『禪教釋』에서 권상의 체제를 그대로 따른다든가 조선 말까지 선종 계통의 교과서로 애용된 점으로 미루어 천태종 계통의 저술로 보기 힘들다.<sup>50)</sup>

46)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징, 『일연과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2007, 92쪽, 주) 7.

47) 金相鉉, 앞의 논문, 1987, 37~38쪽.

48) 『禪門寶藏錄』의 찬자와 성격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정영식, 『韓國看話禪의 源流』, 한국학술정보(주), 2007, 210~230쪽; 정영식, 「고려중기의 『禪門寶藏錄』에 나타난 九山禪門의 선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5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49) 了圓撰, 『法華靈驗傳』, 序: 無寄撰, 『釋迦如來行蹟頌』, 跋文 참조.

50) 蔡尙植, 앞의 논문, 1979b, 152쪽 참조.

따라서 『선문보장록』은 가지산문의 통오진정대선사 청분, 곧 혼구의 저술로 추정된다. 혼구가 이 책을 저술한 충렬왕 19년(1293) 11월에는 내원당에 거주하면서 연곡사 주지도 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통오진정대선사는 충숙왕이 즉위하면서(1313) 감지왕사로 책봉되고<sup>51)</sup> 뒤에 보감국사로 추증된 인물이지만, 이를 앞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충렬왕대에는 1289년 전후에 운문사, 1293년 전후에 내원당과 연곡사, 1295년 전후에 내원당과 운문사 주지를 역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앞에서 밝힌 내용을 몇 가지 요약함으로써 맺음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통오진정대선사 청분과 통오진정대선사 산립은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별개의 승려인지를 검증하려는 의도를 갖고 본고를 작성하였다. 「일연비문」과 「일연비음기」에 각각 나오는 청분과 산립의 정체는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는 가지산문의 양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 양자는 별 의심없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견해를 필자는 밝힌 바 있었으나, 『삼국유사』 연구에 깊은 연구성과를 펼친 김삼현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그의 견해를 지지하는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상반된 견해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주목된다.

곧 「일연비음기」는 통오진정대선사 산립이 지었는데, 그 내용 중에 산립은 일연 생존 시에 그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는 구절이 보인다. 이 구절을 보면 산립은 가지산문 소속 승려이지만, 일연의 직계 문도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일연의 행장을 충렬왕에게 올려 그의 비문을 짓도록 주선한 청분은 일연의 문인이라는 점과 일연의 비가 건립된 지 근 30년 가까이 지난 시기에 입적한 보감국사 혼구의 비문을 이제 현이 찬술하였는데, 여기에는 혼구가 보감국사에게 귀의하고 수학한 제자

51) 『高麗史』 권34, 충숙왕 즉위년 11월 무자 및 李齊賢, 「混丘碑文」 참조.

로 기록된 점을 주목한다. 이로 보면, 청분 곧 혼구와 생전에 일연을 뵈 적이 없다는 산립은 별개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내용 때문에 ‘통오진정’이라는 같은 호를 받은 청분과 산립이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별개의 인물인지 논란이 되었다. 필자는 양자를 같은 인물로 파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였다.

첫째, 고려시기에 대선사, 선사 등은 상당한 위상을 갖는 고승에게 내리는 승계이다. 이들을 대선사, 선사 등으로 임명할 때는 이들에게 호를 함께 하사한다. 아울러 이때는 국가에서 정한 법식과 절차를 따른다. 곧 관고와 교서를 함께 내렸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활동한 동일한 종파에 속한 2명의 승려에게 ‘통오진정’이라는 같은 호를 내렸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대선사인 산립은 인각장로가 『일연비음기』의 찬술을 청하고 가지산문의 주요 사찰인 운문사 주지를 맡고 있는 고위직 승려라면, 산립은 『일연비음기』의 문도 ‘대선사’ 항목에 당연하게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산립이 명기되지 않았던 것은 청분과 산립이 동일한 인물이었기에 평소 많이 사용한 법명인 청분을 명기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둘째, 『대혜종고행장』에 보이는 사례를 주목하고 한다. 곧 ‘대혜’라는 시호를 받은 남악회양선사가 따로 있었기에 종고는 ‘대혜보각’으로 시호를 내렸다는 것이다. 같은 시대에 생존한 인물이 아님에도 혼동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통오진정’이라는 호는 동일한 인물에게 내린 것이다.

셋째, 혼구의 문도들이 지은 행장을 토대로 하여 이제현이 찬술한 『혼구비문』은 일연이 입적한 지 근 33년이 지난 시기에 찬술되었다. 이때 가지산문을 주도한 대표적인 승려인 혼구가 일연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일연이 입적한 근 30여 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르르면 가지산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연을 계승한 인물은 혼구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곧 일연이 남긴 저술에 대해서 다시 증편을 시도한다든가, 원고로 만들어진 『삼국유사』를 일

부 보완하는 등의 혼구의 행적은 그가 일연의 직계 문도는 아니었지만 가지산문을 주도하면서 일연의 계승자였음을 표방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직계 문도는 아니더라도 사상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고승이 있을 경우 그를 스승의 반열로 받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계승한 것으로 표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일연비문」에 일연이 ‘遙嗣牧牛和尚’라고 하여 멀리 목우화상 곧 지눌을 스승으로 계승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遙嗣’라는 것은 같은 시기에 스승과 제자가 마주 대하여 擧揚하고 面前授受한 것이 아니고, 멀리 소급하여 특정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법을 이어 받는 것을 말한다. 근대의 사례이지만 백용성(1864~1940)은 멀리 喚惺志安(1664~1729)을 계승하였음을 표방한 사례가 있다.<sup>52)</sup>

이러한 불교계의 관행은 대체로 고승의 행적을 추종하고 존송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물론 이는 교단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혼구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원간섭기의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 양 측면을 모두 지녔을 것이다. 따라서 혼구는 일연 사후에 가지산문을 주도한 대표적인 승려로서 일연의 직계 문도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를 계승하였다’는 기록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가탁일 뿐이다.

곧 이제현이 「혼구비문」을 왜곡했다기보다는 혼구의 문도들이 지은 행장을 토대로 찬술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혼구의 행장을 작성한 혼구의 문도들로서는, 일연의 입적이 근 30여 년 전의 일이고 크게 보면 모두 가지산문의 문도들이기에 당시 가지산문을 주도하다가 입적한 혼구는 자연스럽게 일연을 계승한 문인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또 그들은 굳이 보각국사 일연과 보감국사 혼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52) 韓龍雲, 『龍城大禪師舍利塔碑銘並序』; 韓普光, 『龍城禪師研究』, 감로당, 1981, 16~17쪽.

## 참고문헌

### 1. 자료

『東國李相國集』

『補閑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文選』

『書狀』

『大慧禪師行狀』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편, 『麟角寺普覺國師碑帖』, 보경문화사, 1992.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은혜사일연학연구원편, 『麟角寺普覺國師碑帖(續集)』, 2000.

### 2. 저서

金尙虛 懸吐譯解, 『書狀』, 화엄학연구소, 1976.

朴胤珍,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경인문화사, 2006.

일연학연구원, 『일연과 삼국유사』, 2007.

정영식, 『韓國看話禪의 源流』, 한국학술정보(주), 2007.

智象 주해, 『書狀』, 불광출판사, 1998.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韓普光, 『龍城禪師研究』, 감로당, 1981.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1986.

### 3. 논문

金相鉉, 『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 『한국사연구』 38, 한국사연구회, 1982.

\_\_\_\_\_, 『三國遺事의 書誌學的 考察』,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_\_\_\_\_, 『麟角寺 普覺國師碑 陰記 再考』, 『한국학보』 62, 일지사, 1991.

-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징』, 『일연과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2007.
- 문경현, 「『삼국유사』 撰述의 史的 高찰 - 達城 毗瑟山 撰述處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27, 신라사학회, 2013.
- 박영돈, 「신자료를 통해서 본 麟角寺普覺國尊碑陰記」, 『비블리오피리』 3, 한국에서가클럽, 1992.
- 朴現圭, 「上海圖書館藏 淸 劉喜海의 定藁本 《海東金石苑》」, 『서지학연구』 21, 서지학회, 2001.
- 李智冠, 「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 張東翼, 「惠諶의 大禪師告身에 대한 檢討」, 『한국사연구』 34, 한국사연구회, 1981.
- 정병삼, 「一然 碑文의 단월」, 『한국학연구』 5, 숙명여자대학교, 1995.
- \_\_\_\_\_, 「일연선사비의 복원과 고려 승려 비문의 문도 구성」, 『한국사연구』 133, 한국사연구회, 2006.
- 蔡尙植, 「普覺國尊 一然에 대한 研究」, 『한국사연구』 26, 한국사연구회, 1979.
- \_\_\_\_\_,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社 結社」, 『한국사론』 5, 서울대 국사학과, 1979b.
- \_\_\_\_\_, 「譯註 普覺國尊 一然碑·陰記」, 『신라사학보』 14, 신라사학회, 2008.
- 한기문, 「고려후기 일연 주관 인각사 구산문도회의 성격」, 『일연과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2007.

〈Abstract〉

## The Identity of Cheongbun(清玢) and Sanrip(山立) in the Headstone of Iryon(「一然碑文」)

Chae, Sang-Sik

Since Cheongbun and Sanrip had the same pen name of ‘Tongohjinjeong.’ They has been regarded as the same person. Some scholars, however, have called this idea in question.

In the epitaph on the backside of the Headstone of Iryon(「一然碑陰記」), we can read that Sanrip Tongohjinjeong the Seon(or Zen) master lamented that he had not visited Iryon before his death, which means that Sanrip was not a direct disciple of Iryon. According to the Headstone of Iryon(「一然碑文」) and that of Hongu(「混丘碑文」), on the contrary, Cheongbun was not only a direct disciple of Iryon but also Hongu himself. Therefore, it might be understood that Cheongbun and Sanrip were different persons.

However, I assert that Cheongbun and Sanrip were the same pers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should be noted that Command Paper and Royal Message were delivered altogether when the Seon master was appointed in Koryo. In other words, it does not make sense that the government gave the same pen name to two Seon masters who belonged to the same religious sect and worked in the same period.

Second, we should consider a similar case in “Daehyejonggohaengjang”(「大慧禪師行狀」). Since Namakhoeyang the Seon master(南岳懷讓禪師) had received ‘Daehye’ as his pen name, Jonggo(宗杲) was called as ‘Daehyebogak.’ Even though they lived in a different period, their pen names should be distinguished. This implies ‘Tongohjinjeong’ is one person.

Third, the Headstone of Hongu, which was based on writings of disciples of Hongu, inscribed after 33 years later than Iryon’s death. At that time, Hongu

who led Gachisanmun(迦智山門) would be considered as a disciple of Iryon. Moreover, in the Buddhist world, one could claim himself as a follower of the priest of virtue if the priest heavily influenced on his thought, even though he was not among disciples.

In conclusion, the inscription that he had learned from and succeeded to Iryon is just a pretext.

\* Key Words: Iryon, Cheongbun, Sanrip, Tongohjinjeong, Command Paper

·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18일 · 심사완료일: 2016년 5월 17일 · 게재결정일: 2016년 5월 23일